

《북사》에 반영된 고구려-수나라관계기사에 대한 분석

리 경 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력사학, 민속학, 고고학부문에서는 우리 인민이 창조한 우수한 민족문화유산들을 더 많이 발굴고증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우리 나라의 역사를 외곡날조하는 행위에 학술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힘을 넣어야 합니다.》

아시아의 강국으로 근 1 000년간 존재한 고구려는 외래침략자들의 침공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움으로써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영예롭게 고수한 우리 민족의 주권국가였다.

이 글에서는 《북사》고구려전에 반영된 고구려-수(隋)관계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고구려가 강한 국력을 가진 당당한 주권국가였다는것을 자료적으로 론증하려고 한다.

《북사》는 659년에 당나라의 봉건관리 리연수가 편찬한 위, 제, 주, 수 등 중국북조나라들의 역사를 통사형식으로 서술한 정사책인데 렬전(권94 렬전82)편에서 고구려를 비롯한 우리 민족의 봉건국가들과 일부 나라 종족들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북사》의 고구려전의 전반부분에서는 고구려건국전설과 시조왕으로부터 31대 영양왕까지 벌어진 대표적인 사건, 사실을 기록하였고 후반부분에서는 고구려의 관직, 조세 등 일부 봉건적통치제도 및 문화관계기사와 함께 고구려-수나라관계 기사를 서술하였다.

《북사》의 고구려-수나라관계기사건수는 모두 8건인데 내용별로 보면 외교사신관계기사가 3건, 수나라가 고구려에 국서를 보낸데 대한 기사 1건, 고구려-수전쟁관계기사 4건이 기록되어있다.

무엇보다먼저 외교사신관계기사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①《수문제가 왕이 되자 탕(고구려 평원왕 559—590년-인용자)이 사신을 보내니 그를 대장군으로 올려주고 고려왕으로 고쳐 봉하였다. 이때부터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는것이 끊기지 않았다.》, ②《문제가 원(고구려 영양왕 590—618년-인용자)을 상개부의동삼사로 임명하고 료동공을 잇도록 하였으며…왕으로 봉하였다.》, ③《원이 해마다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였다.》

자료 ①은 581년에 수나라가 서고 문제인 양견이 왕이 된것을 축하하여 고구려에서 사신을 보낸데 대하여, 자료 ②는 590년에 고구려에서 영양왕이 즉위한것을 축하하여 수나라가 사신을 보낸데 대하여 전하고있는데 마치도 고구려왕이 수나라왕으로부터 《책봉》받은듯이 기록하였으며 자료 ①과 ③의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는것이 끊기지 않았다.》, 《해마다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였다.》라는 기사도 역시 고구려가 수나라에 예속되어 정상적으로 공물을 바친듯이 기록하였다.

수나라를 비롯한 중국봉건국가들이 고구려에 하사하였다는 《책봉》과 고구려가 하였다는 《조공》관계기사는 황제국과 제후국사이의 주종관계, 예속관계를 표현하는것이 아니라 주권국가들의 정상적인 대외관계, 무역관계를 대국주의적립장에서 기록한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고구려가 수나라의 《책봉》을 받았고 《조공》을 하였으므로 수나라에 예속된 나라라면 우리 민족국가였던 백제와 신라도 수나라의 《책봉》을 받고 《조공》을 하였으므로 그에 예속된 국가로 보아야 할것이며(《북사》 권94 렬전82 백제, 신라) 수나라의 동남쪽국경은 조

선남해안까지 나가야 할것이다. 즉 조선반도 전지역이 수나라의 령역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놓고볼 때 우의 기사들은 고구려와 수나라사이에 진행된 국가간 사신왕래와 무역에 대한 사실을 대국주의적립장에서 서술한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수나라가 고구려에 보낸 국서기사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국서관계 기사를 보면 《개황17년에 황제가 탕에게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매번 사신을 보내어 해마다 정상적으로 조공하였다. 비록 변방이라고 말하지만 정성과 레절이 극진하지 못하며 말갈을 협박하고 굳이 거란을 견제하였다. 지난해에 몰래 와서 재물로 소인들을 움직여 사사로이 궁수를 데리고 자기 나라로 도망쳐갔으니 어찌 그 뜻이 일부러 훔쳐간것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사신을 빈방에 앉혀놓고 엄격히 감시하였으며 또 여러번 기병을 보내어 변방사람들을 살해하였고 항상 스스로 시기하고 의심하면서 몰래 형편을 정찰하였다. 은근히 타이르는데 스스로 고칠것을 허락한다.>...》라고 하였다.

이 기사는 598년 제1차 고구려-수전쟁직전에 수나라가 고구려의 강대성에 위구심을 느끼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눌러놓으려는 속심으로부터 고구려에 국서를 보낸데 대하여 기록한것인데 여기서 개황17(597)년에 국서를 평원왕에게 보냈다고 한것은 맞지 않는다. 평원왕은 이미 590년에 죽고 597년 당시 왕은 영양왕이었으므로 이것은 편찬자가 혼돈하여 기록하였다고 볼수 있다.

국서의 내용으로 보아도 이것은 590년이 아니라 제1차 고구려-수전쟁직전인 597년으로 보는것이 합당하며 따라서 기사의 평원왕은 영양왕을 잘못 기록한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국서를 통하여 수나라의 침략위험에 대처하여 진행한 고구려의 대응조치의 일단을 알수 있다. 기록에 있는 《말갈을 협박하고 거란을 견제하였다.》라는 내용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것이다.

이미 수나라는 586년과 587년에 삭방동쪽에 수십개의 성과 장성을 쌓았으며 589년에는 진나라를 멸망시켜 온 나라를 통일하였고 595년경에는 고구려를 배반한 거란족을 북쪽변방에서 살도록 하는 등 고구려의 내정에도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수나라의 침략위험이 날로 가증되는데 따라 고구려 역시 북방종족인 말갈과 연합하고 외교, 군사적으로 거란을 견제하는 등 자기의 국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리고 국서를 보면 수나라는 고구려가 정성과 레절이 극진하지 못하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죽이였으며 나라의 형편을 정찰하였다는 식으로 비방하고 앞으로의 전쟁구실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고구려의 국력이 더욱 강화되는데 겁을 먹은 수나라가 고구려를 외교적으로 위협하고 더 나아가서 군사적으로 눌러놓으려고 하였다는것은 곧 고구려가 수나라에 예속된 국가가 아니라 황제국으로 자처하는 수나라와 대등한 위치에 있는 독자적인 주권국가였다는것을 객관적인 역사적사실로 실증해준다.

이처럼 국서의 내용을 통해서도 고구려는 수나라에 복종하거나 예속되지 않고 모든것을 자기의 의사대로 진행한 자주적인 주권국가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다음으로 《북사》의 고구려전에 반영된 수나라관계기사에서 기본을 이루고있는 고구려-수전쟁관계기사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고구려-수전쟁관계기사는 4건인데 내용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다음해(598년-인용자)에 고구려가 말갈기병 만여명을 거느리고 료서를 공격하자

영주총판 위세충이 공격하여 물리쳤다. 황제가 대노하여 한왕 량을 원수로 임명하고 수륙 군을 거느리고 치도록 명령하였다. 조서를 내려 고구려왕의 작위를 박탈하였다. 이때 식량운반이 계속되지 않아 6군의 식량이 떨어졌고 군사들이 림유관까지 도착하였는데 또 병을 만나 왕의 군대가 위력을 떨치지 못하였다.»

②《대업7년(611년-인용자)에 황제가 장차 원(고구려-영양왕)의 죄를 토벌하려고 수레를 타고 료수를 건너서 료동지역에 군영을 설치하고 길을 나누어 군사를 출동시켜 각각 성밀에 주둔시켰다. …황제가 모든 군사들에게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로 하여 식량은 떨어지고 군사들은 지치고 군량수송은 계속되지 않아 군사들이 거의 패전하였다. 이에 군사들을 철수시켰다. 오직 료수의 서쪽에서 고구려의 무려라를 빼앗고 료동군과 통정진을 설치하고 돌아왔다.»

③《9년에 양제가 다시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여러 군사들에게 칙서를 내려 편의종사하도록 하였다. 여러 장수들이 길을 나누어 성을 공격하였는데 고구려의 기세가 날로 약화되었다. 마침 양현감이 반란을 일으켜 양제가 크게 두려워 즉시 그날로 6군과 함께 돌아왔다. 병부시랑 곡사정이 고구려로 도망쳐 들어왔다. 고구려가 수나라의 일을 알고 모든 정예병이 추격하니 양제의 군사들이 모두 패하였다.»

④《10년에 또 양제가 군사들을 동원하였는데 마침 폭동군이 일어나서 길이 막히자 군사들이 모두 시기를 놓쳤다.»

자료 ①에서는 598년에 진행된 제1차전쟁에 대하여 고구려가 먼저 저들을 공격하였기때문에 전쟁이 벌어진듯이 기록하였다. 고구려가 말갈과 연합하여 수나라의 영주를 공격하여 큰 타격을 준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고구려를 배반한 거란족을 북쪽변방에서 살게 하였을뿐아니라 저들의 관리를 보내어 통치하면서 고구려내정에 간섭하였고 호전적인 국서를 보내는 등 수나라의 적대행위가 날로 로골화되고 더우기 먼저 고구려에 선전포고를 한 조건에서 단행한 응당한 자위적조치였다.

그리고 고구려의 선제공격사실에 대하여 보면 고구려가 수나라의 위협에 굽어들지 않고 자기의 자주권이 침해당하여 주동적으로 침략세력에 대한 징벌을 가하였다는것은 결국 고구려가 수나라에 예속된 국가가 아닌 독자적이고 국력이 강한 나라였다는것을 짐작할수 있게 하여준다.

여기서 《영주총판 위세충이 반격하여 물리쳤다.》라고 한 기록은 사실과 맞지 않는 위곡된 기록이다. 《북사》뿐아니라 《수서》에서도 역시 고구려의 공격을 영주총판 위충(위세충)이 물리쳤다고 썼고 《삼국사기》에서도 우와 같이 기록하였다.(《수서》 권81 렬전46 등이 고구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8 영양왕 9년)

기사의 내용대로 고구려의 공격을 위세충이 반격하여 물리쳤다면 수문제가 대규모의 수, 륙군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침공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도 기록들에서 수나라의 황제가 한왕 량과 왕 세적 등을 모두 원수로 임명하여 수, 륙군 30만(실지는 100여만)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치라고 하였다고 한것은 위세충이 반격하여 물리친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구려의 맹공격에 크게 패하였기때문에 그렇게 한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자료 ②는 612년 제2차 고구려-수전쟁에 대하여 기록한것인데 여기에는 많은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때에 벌어진 고구려-수전쟁은 몇달밖에 진행되지 않았지만 수나라가 품어들어 진행한 침략전쟁준비과정과 쌍방이 동원한 군사인원과 장비, 싸움의 치열성과 간

고성에 있어서 중세력사상 최대규모라고 할수 있는것이였다.

제1차전쟁에서 고구려로부터 심대한 타격을 받은 수나라는 어떻게 해서라도 고구려를 먹어보겠다는 허황한 생각밑에 또다시 온 나라의 인적 및 물적자원을 총동원하여 전쟁준비를 하였다. 몇가지 자료를 보면 608년 수나라는 100여만의 인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탁군(베이징 서남)까지 군량수송을 위한 2 000여리에 달하는 운하를 뚫으며 610년에는 고구려와의 전쟁준비를 하면서 전국에 재산의 많고적음에 따라 군마와 병쟁기를 바치라고 하여 1필의 군마값이 10만전으로 뛰어올랐으며 또한 수많은 인민들과 기술자들을 동원하여 300척의 싸움배를 건조하도록 하였다. 이때 동원된 침략군수는 육군 24개 군단에 113만 3 800명, 수군 10여만명, 양제의 직속부대로서 6개 군단에 약 20여만명, 후속부대가 전투부대의 2배 도합 300만이 훨씬 넘었다.

류례없이 방대한 규모로 전쟁준비를 하고 사상최대의 침략군을 동원하여 전쟁을 하였지만 《북사》에는 그 과정과 내용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 《수서》고구려전에도 이와 같은 내용은 없다.

전투과정 및 준비한 내용이 거의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연구과정에 전쟁행정과 료수의 서쪽에서 점령했다는 무려라성에 대한 문제가 기본상 밝혀졌다.

자료 ③과 ④는 613년, 614년전쟁관계기사인데 이 기사들도 다른 내용들과 다를바 없이 소략, 외곡되였다.

612년전쟁에서 대참패를 당한 수나라는 여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다음해인 613년에 또다시 수십만의 침략군으로 고구려를 침공하였는데 형편은 기록에 있는것처럼 고구려의 기세가 날로 약화된것이 아니였다. 당시의 형세로 보면 수나라는 막대한 희생을 내며 겨우 료하를 건넜고 최종목적지인 북평양성(봉황성)까지 가지도 못한채 고구려 서북방의 주요거점인 료동성 하나 점령하지 못하고있었으며 자국내에서 벌어진 권력싸움을 위한 관리들의 반란사건으로 퇴각하였던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외곡하여 기록한것을 보면 이 전쟁에서도 고구려가 수나라의 침략을 격퇴하였다는것은 자명한것이다.

614년전쟁에 관한 기록도 역시 따지고보면 사실상 613년전쟁과 별로 차이가 없다.

고구려-수전쟁관계 기사를 분석해보면 한가지 공통적인 점이 있다. 그것은 4차례나 벌어진 전쟁중에서 어느 한 전쟁도 수나라가 이겼다고 한것이 없는것이다.

전쟁이 벌어진 년차별로 보면 612년전쟁과 613년전쟁에서는 명백히 패전하였다고 하였고 598년전쟁과 614년전쟁에서는 전염병의 만연으로 싸움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또 내부에서의 반란으로 시기를 놓쳤다는 식으로 기록했는데 따져보면 이것 역시 수나라가 싸움에서 패하였다고 차마 쓰지 못하여 이런 식으로 기록하였을것이다.

결국 수나라가 승리하였다는 내용은 단 하나도 없다.

마지막으로 고구려-수전쟁에 관한 기록 그자체를 통하여 중요한 사실을 알수 있다.

첫 전쟁이 벌어진 598년부터 마지막전쟁이 있던 614년까지 17년동안에 대규모전쟁이 4차례나 있었다. 더우기 612년-614년기간에는 해마다 전쟁이 벌어졌다.

고구려와 같이 병존한 력대 중국봉건국가들치고 고구려와 전쟁 혹은 싸움을 하지 않은 나라가 별로 없었는데 수나라처럼 20년도 안되는 기간에 대규모전쟁을 4차례나 한 나라는 없었다.《북사》권94 렬전82 고구려, 《수서》권81 렬전46 동이 고구려) 또한 중국정사들에서 전하는 고구려관계 기사를 보아도 고구려와의 한두차례의 전쟁은 기록하였으나

고구려-수전쟁기록과 같이 여러차를 기록한것은 찾아볼수 없다.

그러나 왜 대국이라는 수나라가 력사기록에 남을 정도로 수백만의 무력을 동원하여 해를 넘기면서까지 무려 4차례나 고구려를 침략하였겠는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구려가 국력이 강한 강대국이기때문이었다. 589년 온 나라를 통일하여 자칭 대국이라는 수나라로서는 근 1 000년 가까이 존재하면서 광활한 령토에 많은 주민을 차지하고 정연한 통치질서가 수립되었으며 더우기 국경까지 접하고있는 고구려를 그대로 두고서는 《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태롭다고 보았기에 류레없는 대군을 동원하여 침략하였던것이다.

전쟁관계 기사내용은 둘째치고 벌어진 차수로만 보아도 역시 고구려는 수나라에 소속된 《지방정권》인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주권국가로서 강력한 국력을 자랑하는 동방의 강국, 당당한 우리 민족의 국가인것이다.

여러차례 벌어진 대규모전쟁에서 대국이라고 하는 수나라의 침공을 격퇴하고 고구려가 승리할수 있었던것은 고구려사람들이 지닌 높은 애국심과 막강한 국력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이와 같이 《북사》의 고구려전에 반영된 고구려-수나라관계 기사를 분석해보면 고구려는 건국초기부터 자기의 존재를 마칠 때까지 강한 국력으로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고수하고 동족의 나라들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한 자랑높고 긍지높은 우리 민족의 주권국가, 아시아의 강대국이였다.